

소록도의 상처받은 주민들을 돌봅니다

제34회 아산상 ② | 의료봉사상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27년간 소록도 주민들을 돌본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소록도는 이름처럼 섬 모양이 어린 사슴을 닮았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품었지만, 일제강점기 한센병이라는 이유로 강제 이주당한 6,000여 명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100년이 넘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소외된 소록도 주민 420여 명이 소록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은 소록도 사람들에게 “오 선생”이라 불린다. 아플 때 치료도 해주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 함께 울고 웃는 사이다. 평균 연령 80세에 이르는 소록도 주민에게 오동찬 의료부장은 27년 세월 동안 아들 같은 이웃으로 살아왔다. 질병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큰 힘이 되어 왔다.

치료할 환자가 많아 떠날 수 없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치과대학 재학 시절 소록도에서 주민들을 만

난 후 기회가 된다면 의사로서 이들을 돕고 싶다고 결심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강외과 수련의를 마친 직후인 1995년 모두가 기피하는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의를 지원했다. 소록도에는 1,400여 명의 주민들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한센병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없어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주민들의 입 안을 치료하고 구강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 진료가 끝나면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누비며 도울 일을 찾아다녔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농기구를 옮기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곁에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공중보건의 월급을 모아 주민들을 위해 전통 찻술을 사서 나누고, 틀니를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1년만 근무하고 소록도를 떠났기에 정을 주지 않으려

했던 주민들도 그의 진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공중 보건의 3년을 마치고도 대학 병원과 개인 병원 등 좋은 제안을 모두 사양하고 또다시 국립소록도병원 의무 사무관에 지원했다.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소록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센병 후유증 환자를 위한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 개발

당시 소록도의 많은 주민들이 한센병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처져 있었다. 식사 때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평소 벌어진 입 사이로 침이 흘러내렸다. 입안이 노출돼 구강건조증도 심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1960년대 소록도에 온 벨기에 의사들이 비슷한 수술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연구 끝에 주민들을 위한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 처진 아랫입술을 끌어올려 복원된 입술은 보기에도 좋았다.

“수술받은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밥을 흘리지 않게 됐다고 기뻐 하셨어요. 농담으로 입술만 20대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다른 만성질환이 많아 입술 수술까지 하고 싶지 않던 주민들도 수술한 분들을 보고 너도나도 수술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500여 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고 새 입술을 되찾았어요.” 오동찬 의료부장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어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나고 행복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

과거에는 한센병을 '나병'으로 부르며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이런 편견 때문에 병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병을 키워 치명상을 입은 환자가 적지 않았다.

“한센병을 옮기는 나균은 결핵보다 약한 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대 초에 이미 한국을 '한센병 완치 국가'로 분류했고요. 그런데도 소록도 주민들을 향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가족이 소록도에 있다고 하면 자녀나 손주가 과혼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도 주민들이 소록도를 벗어나 병원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려면 제약을 받습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 환자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도 건강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싶었다. 소록도에서 결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함께 살아온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또 여유가 될 때마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한센병과 한센인, 소록도에 대해 과거 잘못 알려진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앞에서 소록도 주민, 병원 직원들과 함께한 오동찬 의료부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소록도에 사는 주민들은 한때 한센병을 앓아 외모에 후유증이 남아 있을 뿐 지금은 완치된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암이 치유된 사람에게 더 이상 암 환자라고 부르지 않듯, 소록도 주민들에게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해외 한센병 마을에도 의료봉사 활동

오동찬 의료부장과 가족은 2005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한센병 마을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매월 50만원 씩 적금을 모아 봉사비로 쓰고 남은 비용은 현지에 기부해왔다. 소록도 간호사 출신인 아내는 진료 보조와 소독을, 한의대와 의대에 다니는 두 딸은 통역과 기구 운반 등을 맡으며 온 가족이 하나의 봉사팀을 이뤘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두 자녀가 남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남이 기쁠 때 손뼉을 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은퇴가 6년 정도 남았는데, 그 무렵이 되면 소록도에서 제 역할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록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해외 한센병 마을을 찾아가 봉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글 **곽한나** 작가